

중기부,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문화관광형시장 등 5개 사업 지원 신청·접수(10.20.~11.16.)
-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기간·규모 확대(2년 최대 10억 원 → 3년 최대 20억 원)
- 폭염·수해 등 이상기후 대비 예산 대폭 확대(예산 132억 원 → 562억 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소영, 이하 중기부)는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20일(화)부터 11월 16일(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고에서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역상품전시회, 우수시장 박람회 총 5개 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 백년시장·생활소비형시장 등 전통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상권 육성사업(글로벌상권, 로컬테마상권, 유망골목상권 등)과 연계해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지원 대상 사업 개요 >

사업명	지 원 내 용
문화관광형시장	지역 고유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부 방문객 유입 촉진(30곳 내외)
시장경영지원	상인 교육·경영 자문 등 역량 강화 및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등 인력지원(400곳 내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화재·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지원(300곳 내외)
지역상품전시회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 상품 및 특상품의 전시·판촉 지원(10곳 내외)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오프라인 박람회를 통한 우수 전통시장·상점가 홍보 및 이용 촉진(1곳)

2027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주요 개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관광형시장은 지원 기간과 규모를 기존 2년간 최대 10억 원에서 3년간 최대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업 종료 이후에도 상인회가 관련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둘째,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의 지원 방식을 개편해 재난 대응 범위를 넓히고 현장의 안전시설 개선 수요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해 폭염 시 냉방시설, 수해 시 배수로 정비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한다. 폭설·태풍에는 결빙 취약 구간 개선, 낙하물 안전관리 등을 지원 항목에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예산을 기존 132억 원에서 562억 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확대하였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성향용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이민호	(044-204-7902)
			사무관	류희열	(044-204-7881)
			주무관	유동원	(044-204-7895)
			주무관	김은솔	(044-204-7893)
			주무관	이재호	(044-204-7898)